

광주 서부경찰 장의용품 비리 수사 부실 논란

장례식장 업주는 빠지고 조화 납품업자만 잡았다

서부경찰과 광산경찰 수사 비교해 보니

■ 서부경찰	■ 광산경찰
장례식장 43곳 조사 유통업자만 37명 적발 박주기식 수사 의혹 계약서 토대 보강수사 방침	독점 납품권 대가 대금 20% 리베이트로 검은 커넥션 혐의 입증 장례식장 대표 등 6명 적발



광주광산경찰이 장례식장 조화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식장을 적발했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이 같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속수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경찰청의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실적 나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장례식장 내 제단용 꽃과 운구차량 장식용 꽃을 납품하고 한 조화를 독점해 수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광주 서부경찰장 대표 고모(66)씨와 S병원 장례식장 과정 문모(56)씨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이

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화훼유통업자 심모(52)씨 등 2명도 적발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월 심씨에게 제단 화환 등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주는 명목으로 납품 대금의 20%를 '리베이트'로 받는 등 최근까지 4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S 병원 장례식장 문씨 등도 독점 납품권 제공 대가로 화훼업자 정모(48)씨에게 500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 장례식장의 경우 광주서부경찰이 조화를 수거한 뒤 재활용하는 '장례업체 비리'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곳으로, 당시 경찰은 조화를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로 조화 유통업자들 37명만 적발한 바 있다.

광산경찰의 경우 화훼유통업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장례식장과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 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부경찰도 광산경찰과 마찬가지로 당시 장례식장과 조화 유통업자 간 계약까지 확인하는 등 수사한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내지 못한 데 따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광산 경찰에 견줘 '수사력'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을(乙)인 화훼유통업자만 적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부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계약서를 토대로 장례식장 업주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경찰청의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지시에 따라 광주지역 38곳, 전남지역 114개 장례업체를 대상으로 ▲중곡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제단 화환 및 저수음의 재사용 여부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료 등에 대한 단속을 들어간 바 있다. 광주·전남청은 또 화장장 예약을 부대기기로 해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포함, 정보를 수집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민변, 카드3사·KT 상대 집단소송 내기로

정보유출 피해 변호사들 국내 첫 당사자로 참여

롯데·NH농협·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와 KT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변호사들이 당사자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대출증개업자에게까지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이 움직이기 시한 집단 소송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우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신용카드 3사와 KT를 상대로 지

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이 추진중인 공익 소송 활동의 하나로, 변호사들이 당사자로 참여해 '집단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소송의 원고는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로, 1억여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킨 롯데·NH농협·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와 1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3개 카드사에서 동시 피해를 본 100여명이 최근 서울 중앙지법

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 변호사 36명 중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은 전원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 원고는 3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태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나만 해도 4곳 모두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소비자 개인 피해구제와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피해 사항, 정보 유출 건수에 따른 소송액 등을 조만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뒤 소장을 낼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판사의 이색 제안... "피고인들, 피해 경찰에게 반성 편지 쓰세요"

"말로만 반성 말고 직접 쓰고 증명, 제출해라" 광주지법 김대현 판사 폭력범 3명에 주문 눈길

"피해 경찰관에게 자필로 편지를 쓰고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형사 재판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반성 편지 쓰기'를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

수 있도록 증명, 제출해라"고 주문했다.

경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뒤이어 주문한 것으로, 말로만 반성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필 반성문을 보내라는 것이다.

김 판사의 경우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한결같이 '반성문 쓰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법원 안팎에서 알려져 있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비슷한 폭력 사건으로 재판중인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반성 편지 쓸 것을 제안했고,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씨에 대해서도 같은 주문을 내렸다.

김 판사는 이들의 '반성 편지' 작성 여부를 선고에 참작하겠다는 입장인어서 이들이 쓴 반성문이 재판부를 움직여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15 의거 곡(哭)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열린 '3·15 의거 곡(哭)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다. '호남 4·19 혁명단체총연합회'는 1960년 3월 15일 낮 12시45분 금남로에서 벌어진 '곡(哭)민주주의의 장송 데모'가 마산 시민봉기보다 3시간 앞서 일어난 첫 유혈 데모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선거법 위반 영장

광주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1)씨와 B(35)씨 등 광주시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C(37)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연대 광주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현직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명을 모

민원 해결 명목 뒤편 받은 국회의원 전 비서관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중범)는 16일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뒤편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김모(46·5급)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9월 광주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남구가 운영하는 남구학고급식지원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업무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받은 돈을 자동차 구입, 채무 변제 등에 썼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같은 장소에서 조카를 광주시 산하 사업소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남구청 등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캐디의 어슬픈 변명 "훔친 골프채 내것보다 안좋아 보관만..."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실린 골프가방을 훔쳐 오나 자신이 갖고 있던 클럽보다 품질이 좋지 않아 쓰지 못하고 모셔둔 30대 현지 골프장 캐디가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모(31)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화개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김모(51)씨의 토스카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 13개, 골프화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장비를 든 가방을 훔친 혐의.

○-전남의 M골프장 현지 캐디인 서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던 중 열려진 김씨의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 가방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훔친 골프채가 갖고 있던 골프채보다 좋지 않아 깨끗하게 보관만 했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지사(제이에스 메디칼) 062) 227-1700